B노선 개통땐 여의도 10분대… 동아아파트 주변 호재 산적

GTX 노선 따라가보니

부평

尹, 'B노선' 착공 기념식 참석
수요자 문의 늘고 기대감 고조

부평구 추진 9개사업 절반이상
동아아파트 주변에서 진행

인천 부평구 '동아아파트'.

부평역 모습 /김대환 기자

"2030년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걸리던 것이 10분으로 단축되는 등 호재가 상당할 것이다."

최근 찾아간 인천 부평구 '동아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GTX-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됐다"면서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늘었고, 실제 거래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1호선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부평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걸리는 동아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로 구성됐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단지는 지상 최고 15층, 17개동, 전용면적 52~122㎡, 총 2475가구 규모다. 2단지는 지상 최고 20층, 22개동, 전용면적 59~164㎡, 총 2128가구 규모다. 지난 1986년(1단지)과 1995년(2단지)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는 총 4603가구에 달하는 부평구 대표 대단지다.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GTX 전체 노선을 포함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부평역을 지나는 GTX-B 노선은 기존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노선을 연장해 춘천(55.7㎞)까지 종점을 잇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이달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역에서 용산역까지는 15분, 서울역까지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부평구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9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동아아파트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GTX-B 노선 호재에 더불어 각종 개발호재를 품고 있어 대장아파트의 면모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단지 바로 앞에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한창이었다. 해당 사업은 하천을 덮은 시멘트를 철거하는 복개작업을 통해 소하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구간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 구간에 이른다.

부평구청은 ▲법정문화도시 추진사업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GTX-B 부평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캠프마켓 이전부지 반환 및 활용사업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활용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및 현대화 ▲어르신 친화 사업 등 9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GTX-B 부평역복합환승센터 설치,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캠프마켓이전부지반환·활용사업 등 5개가 동아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0.01%)와 같은 하락률을 보이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평구(0.00%→0.03%)는 청천·대곡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아2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거래가격(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 올랐다.

최근 부평동에서 최고가 1위를 기록한 '래미안부평'은 같은 기간 전용면적 114㎡가 7억5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1개월 만에 1000만원 상승했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하철 7호선·인천 1호선 더블 역세권과 신축인 부분이 최고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단지는 부평구청역까지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된다. 두 개 정거장만 가면 부평역이라서 GTX 호재 영향권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DL이앤씨

양보없는 품질관리 작년 하자제로 달성

DL이앤씨의 품질 경영 성과와 전사적 혁신활동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DL이앤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 결과, DL이앤씨의 하심위 하자판정건수는 2020년 37건, 2021년 12건, 2022년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하자판정건수 '제로'를 달성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고자 국토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해왔다. 위원회 내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하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DL이앤씨는 '품질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최고의 품질경영 철학 아래 업계 최고 수준의 혹독한 품질 관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보험 브리핑

KB손해보험

50일 이상 5000보 車보험료 5% 할인

KB손해보험이 '걸음수할인특약' 할인율을 확대했다.

◆ 많이 걸으면 자동차보험료 5%↓

KB손해보험은 하루 5000보를 걸으면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걸음수할인특약'의 할인율을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4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걸음수할인특약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인다. 걸음수할인특약은 청약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하루 5000보 이상 걸은 날이 50일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KB금융그룹

마이데이터 통합 데이터플랫폼 구축

KB금융그룹은 28일 금융그룹 최초로 각 계열사에서 수집된 마이데이터를 통합한 'KB고객데이터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KB고객데이터플랫폼은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카드, KB캐피탈 총 5개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금융 마이데이터를 계열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분석 플랫폼이다.

KB금융은 표준화된 분류 체계로 통합된 그룹마이데이터와 고도화된 고객 분석을 통해 고객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KB금융은 KB고객데이터플랫폼의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의 실제 수요와 시장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에 기반한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KB금융은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마련해 KB고객데이터플랫폼의 고객 데이터를 면밀하게 관리한다. 고객 동의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고 있으며, 접근가능한 사용자의 권한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업황악화' 저축은행, CEO 교체로 쇄신 나서

저축은행권이 대표이사 교체를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에 체급을 줄이고 새판짜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석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전상욱 전 대표이사 취임 1년 만에 새 수장이 지휘봉을 잡았다. 이 대표는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단, 신사업총괄 상무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아주저축은행에서 우리금융지주 편입 후 세 번째 대표이사다.

이 대표는 주요 사업방향으로 ▲리스크관리 ▲내실성장 ▲디지털혁신 등 세 가지를 낙점했다. 올해도 저축은행권의 업황 악화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위험관리와 미래 성장 기반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취임식에서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자 시스템 확보를 시사했다.

모아저축은행은 6년 만에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김성도 전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서다. 지난 25일 김진백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모아저축은행에 입행했다. 경영전략본부장직을 수행하면서 기획·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1974년생으로 올해 만 50세다. 금융권에서는 '젊은 CEO'로 분류된다.

김진백 대표 모아저축은행 / 이석태 대표 우리금융저축은행 / 노남열 대표 키움예스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 이석태 대표 선임
전략수립 전문가로 경쟁력 강화

모아저축, 김진백 대표이사 선임
6년만에 수장교체로 젊은 피 수혈

키움예스저축, 노남열 대표 선임
순이익 급감 속 돌파구 모색 주력

김 대표이사 선임 배경에는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김상고 모아저축은행 회장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도 전 대표이사가 5년간 3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2021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다음해인 2022년을 시작으로 순이익이 감소세다. 지난해 3분기에는 당기순손실 22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실적을 집계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키움예스저축은행도 1년 만에 대표이사를 바꿨다. 지난 25일 노남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허흥범 전 대표이사는 키움증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6년 취임한 임경호 대표이사가 대표직에 6년간 몸담았던 것을 감안하면 교체주기를 짧게 책정했다.

허 전 대표 취임 후 순이익이 급감한 만큼 CEO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저축은행은 여·수신 규모를 줄이면서 보수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 단골 이용객인 중장년층을 지키면서 MZ세대, 잘파세대 차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한화손해보험

여성 특화보험 강화 소비자 평가단 발대

한화손해보험이 소비자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3040 여성 고객패널 8명 위촉장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 16기 소비자 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고객패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16기 소비자 평가단은 고객중심 경영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여성 특화 보험사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